



재외동포청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0. 17.(금) 11:30

재외동포청장,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피해 관련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전화 통화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0. 17.(금) 오전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통화해 최근 우리 국민 대상으로 일어난 취업 사기와 관련 현지 상황과 동포 사회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김경협 청장은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우리 국민들의 피해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한편, 이번 범죄로 동포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를 전했다.
 -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은 피해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포사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 및 동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김경협 청장은 범죄 문제의 빠른 해결로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다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 유관부처에 잘 전달하고, 최근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나가는 데 있어 가능한 범위 내 동포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 재캄보디아한인회는 지난 13일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동포 사회의 안전과 조속한 해결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 ※ 붙임 : 재캄보디아한인회 입장문 1부.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책임자	과장	이 규 현	032-585-3172
		담당자	사무관	신 상 철	032-585-3252

대한민국
자체부리피



캄보디아내 한국인 관련 범죄 현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 일자: 2025년 10월 13일

수신: 대한민국 정부(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캄보디아 정부,
대한민국 언론 및 국민

재캄보디아한인회장 및 임원, 교민 일동은 최근 캄보디아 내 온라인 범죄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이로 인해 야기된 교민 사회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핵심 입장은 불법에 대한 단호한 ‘자정’과 ‘국제 공조’를 통해 교민 사회의 안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1.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범죄자’와 ‘핵심 열쇠’의 명확한 규정 및 근본적 해결 촉구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구금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단순한 ‘피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로 보고 배후의 거대한 국제 범죄망을 해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배후 조직 척결: 체포된 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자금세탁, 마약, 조직폭력 등 배후 세력을 정조준하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 한국 정부의 직접적 역할 강화: 현재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한국 정부는 즉시 전문 조사관을 파견하여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돈 있는 핵심 조직원들이 빠져나가고 하위 인력들만 고통받는 ‘범죄 방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 국제공조: 필요시 관련 당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2. 교민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자정’ 노력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의 배후에 ‘캄보디아 주소지’가 등장하여 일부 교민 신분자가 연루되는 현실은, 선량한 다수의 캄보디아인과 캄보디아 주재 교민 공동체의 양심과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불법 연루자 엄정 대응: 범죄 사실을 알고도 아주해 오는 청년들 및 범죄에 연루된 교민에 대해 재캄보디아한인회 차원이 명확한 선 길지를 선언하며, 신고센터 설립 등의 노력과 함께 한국 검찰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 강제 출국 및 재입국 차단: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밝혀진 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출국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우리의 연대는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3. 범죄 우려 확대 및 교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언론 보도 요청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와 납치, 감금이 만연된 나라’로 오판되어 교민 사회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안의 본질인 ‘국제 범죄 근절’에 집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 사실 기반의 보도 요청: 사건·사고 지역이 한정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과장된 보도(예: 박항서 감독 납치 오인 보도)를 자제하여 교민 기업과 상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국제공조의 흐름 동참: 캄보디아 정부, 한국 정부, 국제사회가 모두 온라인 사기 근절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교민 사회 역시 자정 노력을 통해 이 흐름에 동참하여 존중받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4.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촉구

- 온라인 범죄 유인 광고 강력 처벌: 한국 내 각종 알바 앱, 취업 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차단, 앱 삭제는 물론 게시자에 대한 역추적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 코리안데스크 즉각 설치: 재캄보디아 교민의 생존권과 국제 범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코리안데스크의 즉각적인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자정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범죄와의 단호한 거리두기, 그리고 진실된 연대만이 우리 교민 공동체를 다시 존중받는 사회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합니다.